

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832)
	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	권 나 림 사무관 (02-2100-2954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(02-2100-2860)	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861)

제 목 : **고승범 금융위원장,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**

- ◆ 1.19.(수), **고승범 금융위원장은**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경제·금융 연구기관, 시중은행 등과 함께 **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** 하기 위한 **간담회**를 개최하였습니다.
- ◆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으로 **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**하였으나, **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**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.
- ◆ 향후 **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**를 위해,
 - **만기연장·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,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
 - 자영업자의 경영·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, 이를 토대로 **금융애로해소**를 위한 **맞춤형 대책**을 검토하며,
 -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**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1 행사 개요

- **고승범**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(3월말) 등에 대비하여,
- 현재 소상공인 등의 **경영 현황** 및 **대출시장** 내에서의 **리스크 요인**을 점검하는 **간담회**를 개최하였습니다.

- **일시/장소** : '22.1.19.(수) 10:00~11:00 /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
- **금융위·금감원** : 고승범 금융위원장,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
- **참석 전문가** :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,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,
남창우 KDI 부원장,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,
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,
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,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
- **논의 안건** : ①소상공인 업황 및 현황, ②소상공인 대출 잠재리스크 요인

2 참석자 주요 발언

※ 금융위원장 발언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>

- ☐ 대출만기 연장,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
- ☐ 그러나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,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
 -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
 -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,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
- ☐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필요
 -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,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
 -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
- ☐ '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

< 남창우 KDI 부원장 >

- 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·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
 -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
- ☐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,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
 -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,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·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
- ☐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환세를 고려,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, 장기대출전환, 채무조정,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
- ☐ 자영업·소상공인의 신용·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, 카드매출자료, 국세청자료 등을 DB화할 필요

<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>

- ☐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,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
 -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,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
 -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, 음식점업,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음
- ☐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,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,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
- ☐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

* 예 :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,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하여 폐업비용 지원, 대출상환유예,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

<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>

- ☐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
 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,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
- ☐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, 회복지연 업종,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
 -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선별적 대응 필요
- ☐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·모니터링 체계 구축·활용 검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